

< 2014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>

1. 다음 중 70세를 가리키는 말로 옳은 것은?

- ① 이순(耳順)
- ② 종심(從心)
- ③ 지천명(知天命)
- ④ 불혹(不惑)
- ⑤ 이립(而立)

정답 ②

해설 일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은 ‘종심(從心)’이다.

- ① 이순(耳順): 예순 살을 달리 이르는 말
- ③ 지천명(知天命): 쉰 살을 달리 이르는 말
- ④ 불혹(不惑): 마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
- ⑤ 이립(而立): 서른 살을 달리 이르는 말

<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2권 280쪽/제2권 279쪽 4번 문제

2.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?

- ①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②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.
- ③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.
- ④ 그다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
- ⑤ 오직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.

정답 ③

해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묻는 문제이다. ‘모름지기’는 ‘반드시’라는 뜻을 지니는 부사로 문장 성분 쓰일 때는 ‘~해야 한다’와 호응한다. ‘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.’가 옳은 문장이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 > 적중률: 100% 제2권 336, 339쪽/제2권 328쪽 1번 문제

3.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옳바르지 못한 것은?

- ① ‘다리(脚)’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‘책상’에도 쓰인다.
- ② ‘짐승’은 ‘衆生’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.
- ③ ‘사랑하다’는 ‘생각하다’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의미가 없다.
- ④ ‘어여쁘다’는 ‘조그맣다’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‘아름답다’의 의미이다.
- ⑤ ‘어리다’는 ‘어리석다’의 뜻이었다가 지금은 ‘나이가 적다’의 의미로 쓰인다.

정답 ④

해설 ‘어엿하다’는 중세국어에서 ‘불쌍하다(憐)’라는 뜻을 가졌다. 그런데 근대 국어에서 ‘불쌍하다,’와 ‘예쁘다’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다가, 현대 국어에서는 ‘아름답다(美麗)’의 의미로 쓰인다. ‘조그맣다’의 의미로 쓰인 적은 없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1권 13, 199쪽/제1권 199쪽 6번 문제

4.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?

봄·여름·가을·겨울, 두루 사시(四時)를 두고 자연히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.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적은 봄과 여름이요, 그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, 봄 가운데도 만산(萬山)에 녹엽(綠葉)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. - 이양하, <신록예찬> 중에서

- ① 두루 ② 가장
- ③ 풍성히 ④ 아낌없이
- ⑤ 아름답게

정답 ⑤

해설 ‘아름답게’는 ‘아름답다’의 활용형으로 ‘보이는 대상이나 음향,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.’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.

- ① ‘두루’는 ‘빠짐없이 골고루’라는 뜻의 부사이다.
- ② ‘가장’은 ‘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’라는 뜻의 부사이다.
- ③ ‘풍성히’는 ‘넉넉하고 많이’라는 뜻의 부사이다.
- ④ ‘아낌없이’는 ‘주거나 쓰는 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’라는 뜻의 부사이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1권 174쪽/제1권 172쪽 4번 문제

5.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?

- ①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.
-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.
- ③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.
- ④ 돌이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다.
- ⑤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.

정답 ③

해설 ③은 ‘봄이 되다’와 ‘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다’의 두 문장이 ‘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’이다. ①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 ②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④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⑤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, 모두 ‘안은 문장’이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1권 176쪽/제1권 173쪽 7번 문제

6. 다음 단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?

콩트, 더블, 게임, 피에로

-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’만을 쓴다.
-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도록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.

정답 ①

해설 ‘콩트, 더블, 게임, 피에로’는 외래어 표기법 제4항 ‘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’는 규정에 근거하여 ‘꽁트, 떠블, 께임, 뻬에로’로 쓰면 안 되는 어휘들이다. ‘콩트(conte)’는 단편 소설보다도 짧은 소설이고, ‘더블(double)’은 어떠한 수량의 배(倍)를 이르는 말이며, ‘게임(game)’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고, ‘피에로(pierrot)’ 프랑스의 무언극에 나오는 어릿광대를 이르는 말이다.

- ② 제3항 -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’만을 쓴다.
- ③ 제2항 -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.
- ④ 제5항 -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,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.
- ⑤ 제1항 -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1권 340쪽/제1권 339쪽 1, 2, 3번 문제

7.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.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?

- ①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결혼을 한다고 한다.
-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.
- ③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.
- ④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.
- ⑤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.

정답 ⑤

해설 중의적 표현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말하는데,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으로 나눌 수 있다. ⑤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어휘적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이다. ‘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.’라는 문장은 상황에 따라 ‘복부·선박·과일’중 하나로 해석된다. ①,②,③,④는 구조적 중의성이 나타난 문장이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1권 202쪽, 제2권 390~396쪽/제1권 203쪽 8번 문제

8. 다음 문장에 쓰인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?

우리 용기는 양은 그릇에 떡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맞았다.

- ①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.
- ② 지금껏 역사를 굽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.
- ③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.
- ④ 보고 싶어요, 붉은 산이, 그리고 흰 옷이.
- 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.

정답 ②

해설 ‘양은 그릇에 떡살을 잡히고,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 맞았다.’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쓰인 것이다. 이와 유사한 수사법의 예로는 ② ‘강물은 말없이 흐른다.’가 있다. ①은 대유법, ③은 점층법과 대구법, ④는 도치법 ⑤는 은유법이 쓰인 예이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 > 적중률: 100% 제3권 42쪽/제3권 35쪽 5번 문제

9.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?

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%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.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%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.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추정된다. 그는 “보통 사람은 뇌의 10%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~20%를 사용한다.”라고 말한 바 있다.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%가 아니라 6%라고 수정했다.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%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.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.1%에 불과해서 자신이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 됐다.

- ①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.
- ② 어른들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③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.
- ④ 인간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.
- ⑤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정답 ⑤

해설 제시문의 핵심정보는 ‘인간 두뇌 능력 활용’이다. 조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논지에서 벗어난 정보이므로 이 글 다음에 이어질 수 없다.

- ① 두뇌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소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‘인간 두뇌 능력 활

용'과 관계가 있다.

②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'인간 두뇌 능력 활용'과 관계가 있다.

③ 학생의 재능 발휘는 '두뇌 능력 활용'과 관계가 있다.

④ 인간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'인간 두뇌 능력 활용'과 관계가 있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 > 적중률: 90% 제4권 350쪽(유사 지문과 문제)

10.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?

① 올해 신입생 입학율이 저조하다.

② 네 기사가 어린이란에 실렸다.

③ 알고도 모르는 채하였다.

④ 남술의 처는 또 한번 웃기 잘하는 그의 입술을 방긋 벌리었다.

⑤ 껌질채 먹는 것이 몸에 좋다.

정답 ④

해설 '방긋'은 '입을 예쁘게 약간 벌리며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.'을 이르는 말로 '방긋'보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.

① '입학율(×)'이 아니고 '입학률(○)'이다. '모음'이나 'ㄴ' 받침 뒤에 이어지는 '렬, 룰'일 때 '열, 율'로 적으므로 '입학률'은 원래대로 '룰'로 적어야 한다.

② '어린이란(×)'이 아니고 '어린이란(○)'이다. 한자어가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.

③ '채하다(×)'가 아니고 '체하다(○)'이다. '체하다'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'-은 체하다', '-는 체하다' 구성으로 쓰이며, '척하다'로 쓸 수도 있다.

⑤ '껌질채(×)'가 아니고 '껌질째(○)'이다. '째'는 '그대로', 또는 '전부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며, '껌질'을 그대로 먹는 것의 의미이므로 '째'를 쓰는 것이 바르다. '채'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 > 적중률: 100% 제1권 231쪽/제1권 214쪽 1번 문제

11.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.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?

잇몸, 바닷가, 뒷일, 전셋집

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②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'ㄴ', 'ㄹ'앞에서 'ㄴ'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'ㄴㄴ'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- ④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정답 ⑤

해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나는 예는 없다.

- ① 바닷가[바다까/바닷가]: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② 잇몸[인몸]: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‘ㄴ’, ‘ㄱ’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③ 뒷일[된 : 닐]: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④ 전셋집(傳貰-)[전세집/전셋집]: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1권 247쪽/제1권 246쪽 3번 문제

12.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문장은?(‘√’는 띄어쓰기 부호)

- ① 옷√한벌√살√돈이√없다.
- ② 큰√것은√큰√것√대로√따로√모아√뒀다.
- ③ 강아지가√집을√나간√지√사흘√만에√돌아왔다.
- ④ 이√나무는√10√미터가√넘는다.
- ⑤ 합격했다는√말에√뿔듯이√기뻐하였다.

정답 ③, ④ [복수 정답]

해설 ‘지’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
- 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‘옷√한√벌’로 쓴다.
- ② ‘대로’가 체언 뒤에 붙어서 ‘그와 같이’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‘것대로’처럼 붙여 써야한다.
- ④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‘미터’는 ‘10 미터’와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,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쓸 때에는 ‘10미터’와 같이 붙여 적을 수도 있다. 붙여 쓰는 것과 띄어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.

*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. 다만,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. -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임.

- ⑤ ‘듯이’는 어미 ‘-은’, ‘-는’, ‘-을’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이다. ‘뿔√듯이’처럼 띄어 써야 한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1권 259쪽/제1권 261쪽 6번 문제

13.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궁도런님 :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은 잘 모르는 사람

- ② 윷뚝뚝이 :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
- ③ 책상물림 :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
- ④ 두루치기 :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. 또는 그런 사람
- ⑤ 대갈마치 :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

정답 ②

해설 ‘윷뚝뚝이’는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.
 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2권 86쪽(윷뚝뚝이), 275쪽(책상물림), 276쪽(두루치기), 67쪽(대갈마치)/제1권 275쪽 3번 문제, 54쪽 2번 문제

14. 다음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묶은 것이다. 이들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예가 들어 있는 것은?

- ① 눈대중 - 눈어림 - 눈짐작
- ② 보통내기 - 여간내기 - 예사내기
- ③ 멀찌감치 - 멀찌가니 - 멀찍이
- ④ 녁쿨 - 덩굴 - 덩쿨
- ⑤ 되우 - 된통 - 되게

정답 ④

해설 ‘녕쿨’과 ‘덩굴’은 복수 표준어이다. ‘덩쿨’은 잘못된 표기이다.
 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1권 316쪽, 312쪽/제1권 383쪽 71번, 72번 문제

15. 다음 문장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순서대로 바르기 옳긴 것은?

그는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.
 그 집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.
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한다.
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.

- ① 不淨 - 不正 - 不正 - 否定
- ② 不正 - 不淨 - 不定 - 否定
- ③ 不定 - 不淨 - 否定 - 不定
- ④ 不貞 - 否定 - 不淨 - 不定
- ⑤ 不貞 - 不定 - 否定 - 不淨

정답 ②

해설 부정의 뜻을 고려하여 한자어 순서대로 배열하면 ‘不正-不淨-不定-否定’이다.
 부정(不正):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.
 부정(不淨): 사람이 죽는 따위의 불길한 일.
 부정(不定): 방정식이나 작도(作圖) 문제에서 그 답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일.
 부정(否定):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.

< 국어의 시작과 끝 > 적중률: 90% 제2권 144쪽/제2권 24쪽 2번 문제

16. 다음 사자성어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?

- ① 桑麻之交 ② 刎頸之交
- ③ 膠漆之交 ④ 金蘭之交
- ⑤ 水魚之交

정답 ①

해설 '상마지교(桑麻之交)'는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 삼아 지낸다는 뜻으로, 전원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. 나머지는 친한 친구의 사귀를 나타내는 말이다.

② 문경지교(刎頸之交):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,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,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.

③ 교칠지교(膠漆之交):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이르는 말.

④ 금란지교(金蘭之交):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.

⑤ 수어지교(水魚之交):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,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< 국어의 시작과 끝 > 적중률: 98% 제2권 228쪽/제2권 230쪽 3번 문제

17. 다음 중 창작 군담소설(일명 영웅소설)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- ① '영웅의 일생'이라는 전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.
- ② 대중소설적 성격이 강하다.
- ③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.
- ④ 시·공간적 배경은 16~17세기 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.
- ⑤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.

정답 ④

해설 군담소설은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. 우리나라 고대 소설의 한 유형으로, <임진록>과 같이 실재했던 전쟁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과 <유충렬전>, <조웅전>과 같이 허구적 전쟁을 소재로 한 창작 군담 소설이 있다. 군담소설의 배경은 조선인 경우도 있지만 중국이 배경인 소설이 대부분이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 > 적중률: 100% 제3권 436쪽/제3권 436쪽 1번 문제

18. 1930년대 문단의 상황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잘못된 것은?

- ① 김동리, 김유정 등 동반자 작가들이 활동했다.
- ②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.
- ③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.
- ④ 전원파, 청록파,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.
- ⑤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(KAPF)가 해체되었다.

정답 ①

해설 동반자 작가는 공산주의 혁명운동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서 혁명운동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문학경향을 가진 작가를 이르는 말이다. 김유정, 김동리 둘 다 동반자 작가가 아니다. ‘김유정’은 1930년대 활약한 작가로 ‘구인회’에 참가하였으며, 농촌과 도시의 토속적 인간상을 유머러스한 필치로 그려내었다. 작품에 <봄봄>, <동백꽃>, <따라지> 따위가 있다. ‘김동리’는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,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인 순수문학 작가이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3권 182쪽/제3권 183쪽 2번 문제

19.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?

머언 산 청운사(靑雲寺)/ 낡은 기와집
 산은 자하산(紫霞山)/ 붉은 녹으면
 느릅나무/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
 청노루/ 맑은 눈에
 도는/ 구름 - 박목월, <청노루>

- ① 시상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②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③ 시상이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④ 시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⑤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.

정답 ①

해설 청노루는 2행을 1연으로 한 5연의 자유시로, 청노루를 중심으로 봄의 정취를 회화적으로 그린 서정시이다. 특히 ‘청운사’, ‘느릅나무’, ‘청노루’, ‘눈’, ‘눈 속의 구름’으로 소재가 이어지는데, 이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방식으로 볼 수 있다.

< 국어의 시작과 끝> 적중률: 100% 제3권 118쪽/제3권 118쪽 1번 문제

20.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?

- ① 가상(假象) 현실에서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.
- ② 가시(可視)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.
- ③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생 편력(遍歷)이 드러나 있다.
- ④ 그 이야기는 과장(誇長) 없는 사실이다.
- ⑤ 삶에 대한 통찰(通察)이 묻어나는 말씀이다.

정답 ③

해설 ‘편력(遍歷)’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뜻으로 문맥상 적절하게 쓰인 한자어이다.

- ① 가상(假象):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.
- ② 가시(可視): 눈으로 볼 수 있는. 또는 그런 것.

④ 과장(誇張):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.

⑤ 통찰(洞察):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.

< 국어의 시작과 끝 > 적중률: 100% 제2권 102쪽/제3권 133쪽 46번 문제